

# 일본경제리뷰 No.18\_08

## < Special Issue >

2분기, 내수진작에 따른 1.9% 성장

### Contents

<Special Issue> .....	1
I. 한일경제동향 .....	3
II. 이달의 일본경제	
1. 경기·무역 동향 ....	6
2. 경제정책 .....	10
3. 기업전략 .....	15
III. KJCF&KJE News ....	19
IV. 이달의 추천자료 .....	21
V. 한일경제지표 .....	22



## 〈 Special Issue 〉 2분기, 내수진작에 따른 1.9% 성장

○ 일본 내각부가 8월 10일 발표한 2018년 1분기(4-6월) 실질GDP는 연율환산으로 전기비 1.9% 성장함

- 소비를 끌어올린 임금인상효과는 앞으로도 경기진작요인으로 기대되고 있음

### □ 잠재성장율을 크게 상회

○ 일본경제의 중장기적인 실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율은 1%정도로, 이번 분기에 이를 크게 상회한 것은 2017년 3분기(2.3%)이후 처음임. 2018년 말부터 계속되고 있던 경기의 둔화상태는 일단 벗어난 형국임

○ 그러나 앞으로 3분기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폭서가 소비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

- 여기에다 미중무역전쟁의 확대 등 해외경제의 불안도 기업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경기 회복은 지속성에 문제를 안고 있음

### □ 외수주도에서 내수주도의 성장으로

○ 그동안 일본경제는 외수에 의존해왔으나 2분기에는 내수가 회복되었음

- 개인소비는 자동차와 가전 등 내구소비재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서비스 소비도 증가함

### □ 임금인상을 통한 소비진작이 고성장에 기여

○ 이를 지탱해주었던 것이 바로 소득의 개선으로 수입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실질피고용자보수는 전기비 1.9% 증가로 2003년 1분기(2.0%)이후 높은 수준임

○ 20년만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임금인상효과는 소비의 진작요인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만성적인 일손부족에 대한 성력화 등 설비투자도 계속 경기를 견인할 전망이다

- 민간 경제연구소의 예측에서는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까지는 회복이 계속될 전망이 많음

- 실질GDP의 내역은 내수의 기여도가 9.6%포인트, 외수의 기여도가 -0.1%로 나타남
  - 항목별로는 GDP의 60%를 점하는 개인소비가 전기비 0.7% 증가로 2분기만에 플러스를 기록, 자동차수요가 호조를 보인 외에 에어컨과 백색가전 등을 포함한 가정용기구가 기여함
  - 설비투자는 1.3% 증가로 7분기 연속 플러스로, 성력화투자와 연구개발 등 기업의 설비투자수요가 증가함
  - 주택투자는 2.7% 감소, 임대주택 착공이 부진한 영향임. 공공투자는 0.1% 감소함
  - 수출은 0.2% 증가, 수입은 1.0% 증가함. 수출은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해상수송의 화물과 전문적인 컨설팅서비스 등 서비스 수출은 둔화
  - 수입은 내수의 증가로 수입량이 증가함

□ 미국발 무역마찰과 유가상승 등이 3분기 GDP에는 악영향 예상

- 그러나 앞으로 불투명한 요소는 적지 않음
  - 이례적인 폭서로 소비자의 외출자제로 소매점이나 외식, 레저 시설의 출입이 둔화되고 있고 생선, 야채의 작황불량은 가격상승의 형태로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
  - 유가상승에 따른 전기·가스 요금의 상승과 겹쳐지는 경우 임금인상효과는 상쇄되어 가계의 절약지향성을 유발시킬지 모르는 상황임
- 한편 해외요인을 보면, 미중무역전쟁의 확대가 장래 불안을 높이고 있음
  - 기계메이커들에 의한 3분기 수주전망은 5분기만에 감소할 전망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으로 인해 설비투자를 유보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
  - 특히 미국발 무역마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상임
  - 미쓰비시UFJ모르건스탠리증권의 시산에 의하면,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에 25%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본의 대미 자동차수출은 20% 감소, GDP를 0.2포인트 감소시킴
  - 장기간의 경기회복으로 내수의 기반이 탄탄해졌다 하더라도 기간산업에 대한 타격은 국내경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지적임

## &lt; 2018년 2분기 GDP성장율 내역 &gt;

		2017	2017			2018	
			2/4	3/4	4/4	1/4	2/4p)
GDP	전기비	1.7	0.5	0.5	0.1	-0.2	0.5
	연율환산	1.7	2.0	2.0	0.6	-0.6	1.9
개인소비		1.0	0.7	-0.7	0.2	-0.0	0.7
주택투자		2.7	0.9	-1.6	-2.7	-2.1	-2.7
설비투자		2.9	0.8	1.0	0.6	-0.1	1.3
정부소비		0.2	0.2	0.0	-0.0	0.0	0.2
공공투자		1.2	4.7	-2.6	-0.4	0.0	-0.1
수출		6.7	-0.1	2.0	2.2	0.6	0.2
수입		3.4	1.8	-1.3	3.1	0.3	1.0

자료: 내각부, p)는 1차 속보치

## 1. 한일 경제 동향

### □ 무역

-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있는 산업 내 수직적 제품 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  - 따라서 한일 간 무역은 가격환산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
- 2017년 기준 한국 수출의 對日의존도는 4.7%, 수입의 대일의존도는 11.5%
  - 한편, 2017년 한국 제품의 일본수입시장 점유율은 4.2%
- '18.7월 對日무역적자는 2,038백만 4개월만에 확대
- 對日수출은 2,541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2.3% 감소
  - 기초산업기계 대신에 산업기계가 10대 對日수출 상품에 포함된 가운데, 광물성연료의 對日수출 감소폭이 17.6%로 가장 큼
  - 對日수출 증가품목 중에서는 철강제품이 9.8%로 증가폭이 가장 큼 (한일경제지표 1 참조)
- 對日수입은 4,579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3.1% 증가
  - 10대 對日수입 품목 중 수송기계의 對日수입 증가폭이 36.5%로 가장 큰 반면, 對日수출 감소품목 중에서는 철강제품이 -14.4%로 감소폭이 가장 큼

## &lt; 2018년 7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 달러,%) &gt;

	2018.6월			2018.7월			2018.1-7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對日수출	2,602	10.7	2.9	2,541	17.5	-2.3	17,768	15.6
對日수입	4,443	-6.9	0.8	4,579	2.7	3.1	32,592	3.3
무역수지	-1,842	-23.9	-2.0	-2,038	-11.3	10.6	-14,824	-8.4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 □ 일본인 직접투자

- '18.2분기 일본인 직접투자, 2분기 연속 증가
  - '18.2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504백만 달러로 전기대비 37.0% 증가
- 한편 '18.6월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329억 엔으로 전기대비 16.3% 감소
  - '18.6월 對韓직접투자는 일본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.6%

## &lt; 일본인 직접투자 추이 &gt;

	2017	2018 1분기	2018 2분기	2018.5월	2018.6월
일본인직접투자(백만달러, %)	1,862 (90.1)	368 (135.9)	504 (37.0)	-	-
전체 외국인직접투자(백만달러, %)	22,970 (7.8)	4,934 (-47.3)	10,820 (119.3)	-	-
일본의 對韓직접투자(억 엔, %)	4,112 (18.8)	993 (3.3)	1,038 (4.5)	393 (24.4)	329 (-16.3)
일본의 해외직접투자(억 엔, %)	559,108 (-18.0)	203,157 (247.6)	145,925 (-29.3)	33,823 (-39.3)	56,447 (66.9)

주 : ( )내는 전기비 증가율, 일본인투자는 신고기준, 일본의 대한투자는 국제수지기준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일본재무성

- 핀테크 벤처기업 디온페이(Dionpay)가 2018년 7월 25일 일본기업 엑스타임(Extime)과 30억 엔(약 300억 원)의 투자계약을 체결
  - 디온페이는 다양한 전략시뮬레이션 게임과 게임포털 '조이랜드'를 개발하고 서비스했던 '시노조익' 대표이자 개발자인 김성민 대표가 싱가포르에 세운 핀테크 벤처기업임
  - 엑스타임은 '타임포인트(Time-Point)'라는 솔루션을 개발해 일본, 미국, 중국, 한국의 특허를 보유한 일본 중견기업임(봉황망코리아, 2018.8.16)

## □ 인적교류

- ‘18.7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, 전월대비 2.0% 감소
  - 7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230,512명으로 6월보다 2.0% 감소
  - 그동안 일본인 관광객은 2010년을 정점으로 한일관계 악화와 엔화가치 하락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음
- ‘18.7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 0.3% 증가
  - 7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608,000명으로 6월보다 0.3% 증가
  - 6월-7월중 오사카 지진과 호우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둔화

## □ 기타 한일경제 관련 언론기사, 보도자료 등

- 한국, 기업중시로 회귀(일본경제신문, 2018.8.7.)
  - 일본경제신문이 윤종원 경제수석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이 기업중시로 회귀하고 있다고 논평
- 윤종원 경제수석은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규제완화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잠재성장율을 높이겠다고 말함
  -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발족 당시 내걸었던 소득주도 성장을 궤도에 올려놓지 않고, 경제정책의 중점을 노동자에 대한 분배에서 기업성장으로 전환했음이 선명해졌음을 시사
  - 윤 수석은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창출이나 임금인상으로 소득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목적을 둔 분배중시정책의 하나이나, 실제로는 고용이 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과는 오르지 않고 있다고 평가
  - 윤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분배중시정책의 기수였던 홍장표 전 수석과 2018년 6월에 교체된 바 있음
-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장 주력해야할 정책 규제혁신을 제시했다고 말함

- 윤 수석은 한국은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율이 3%대를 하회하고 있는 만큼, 이를 높여 민간부분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명언하고, 민간이 도전하고 성장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기회를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할 생각을 표명함
- 또, 앞으로 산업정책은 전자 등 과거 같이 특정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법은 시대착오라고 지적, 공정한 경쟁환경을 정비하여 민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에코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함
- 민간의 리스크가 큰 분야는 정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하고, 교육시스템을 바꾸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
- 나아가 윤 수석은 문 정권이 추진한 삼성 등 대기업의 거버넌스 개혁 등 재벌개혁에 관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동시에 재벌이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

## II. 이달의 일본경제

### 1. 경기·무역 동향

#### □ 경기회복세 유지

-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음
  - 개인소비가 회복경향을 보이고 있음
  - 앞으로도 고용·소득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, 각종 정책의 효과도 있어 완만한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- 다만, 6월의 경기동향지수는 전월대비 1.5포인트 하락한 116.3으로 2개월 연속 하락
  - 반도체 제조장치의 부품조달 지연의 영향으로 광공업생산지수가 하락하고, 도매업 판매액의 저조도 지수하락에 기여
  - 그러나 일본 내각부는 21개월 연속 경기가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기조 판단을 유지
- 6월의 실질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.2% 감소

- 여행비의 감소가 컸던 외에, 상하수도료와 전기료도 감소
- 그러나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.7% 증가
-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「선박·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」 6월 기계수주액은 전월 수주증가의 반동으로 전월비 8.8% 감소
- 제조업에서는 전기기계와 화학공업,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이 감소
-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0.3% 증가
- 「일본은행단관(短観)」(2018년 6월) 등에 의하면, 기업들이 설비부족감을 느껴 2018년도 산업 설비투자계획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6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.8% 감소
- 반도체와 플랫패널디스플레이제조장치 등의 생산이 감소
- 6월의 완전실업율은 전월보다 0.2%포인트 높은 2.4%
- 고용정세의 개선을 배경으로 보다 좋은 노동조건을 선호하는 자발적인 이직이 늘어남
- 유효구인배율도 전월보다 0.02포인트 높은 1.62배로 4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
- 이는 구직자의 취업도 좋아지고 있지만 구인수가 구직자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으로, 특히 건설업과 의료·복지·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신규 구인수가 증가
- 7월의 실질수출은 전월대비 5.5% 감소
- 미국에 대한 실질수출이 전월대비 4.4% 감소로 부진
- 전월대비로는 0.8% 증가
- 앞으로도 해외경기의 완만한 회복 등을 배경으로 회복이 지속될 전망
- 6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월과 같은 전년동월대비 0.8% 상승
- 유가상승에 따른 휘발유가격과 등유의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전월비로는 0.0% 상승



- 일본은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셈치고는 물가와 임금 상승폭이 작은 편인데,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 있어, 중장기적인 예상물가상승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
- 일본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

## □ 무역수지 흑자 반전

- 7월 무역수지(통관기준)는 전월의 흑자에서 2,312억 엔 적자로 반전
  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676억 엔 적자에서 2,120억 엔 적자로 증가한 한편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5,719억 엔에서 5,027억 엔으로 감소
  - 수출의 감소가 수입의 증가를 수반한 것이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짐
- 7월 수출액은 전월대비 5.6% 감소한 6조 7,474억 엔
  - 5대 수출품목 중 반도체 등 전자부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, 원동기의 수출 감소폭이 전월대비 -6.3%로 가장 큼(지표 4)
  - 주요 국가·지역별 수출은 모두 감소한 가운데,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-3.7%로 가장 큰 한편,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은 -3.3%(지표 5)
- 7월 수입액은 전월대비 11.1% 증가한 6조 9,786억 엔
  - 5대 수입 품목 모두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, 의약품의 수입 증가폭이 38.4%로 가장 큼(지표 6)
  - 주요 지역별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폭이 전월대비 17.4%로 가장 큰 한편,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폭은 3.8%(지표 7)

### < 2018년 7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>

	2018.6월			2018.7월			2018.1-7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수 출	7.1	6.7	12.7	6.7	3.9	-5.6	46.8	5.6
수 입	6.3	2.5	-8.7	7.0	14.6	11.1	46.5	8.4
수 지	0.7	66.5	-	-0.2	-	-	0.3	-25.0

자료 : 재무성

- 7월의 엔화환율(대미달러)은 111.4엔으로 전월대비 1.0% 엔저
  - 최근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투자가들의 리스크 선호가 계속되는데 더하여, 상대적으로 유망한 투자선인 미국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점에 더하여 9월중 미국의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배경임
  - 對원화환율은 100엔당 993엔으로 1.5% 원저(엔고)
- 6월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월대비 66.9% 감소한 5조 6,447억 엔
  -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대비 16.3% 감소한 329억 엔
- 6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보다 39.3% 감소한 증가한 1조 1,756억 엔
  - 경상수지 흑자는 48개월 연속, 무역수지 흑자는 8,205억 엔, 제1차 소득수지는 5,876억 엔

## □ 일본 민간조사기관의 2018-2019년 경제전망

- 일본 민간조사기관 20개사의 경제전망이 발표됨
  - 실질 GDP성장율의 평균치는 2018년도가 전년도비 1.1%로, 2019년도가 0.8%로 나타남
  - 5월 시점에 비하여 2018년도는 수출이 하향 수정된 한편 설비투자는 상향 수정됨
- 2018년도는 일손부족, 설비노후화의 영향으로 설비투자의 회복이나 세계경제의 확대를 배경으로 한 수출의 견조한 추이에 의해,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음
  - 주택의 경우,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가 경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
- 2019년도는 소비세 인상에 의한 가수요·반동적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, 2014년 소비세인상시보다도 가계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경기회복이 지속된 후, 경기 후퇴국면 진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
- 소비자물가지수(생선식품 제외)전망은 2018년도 0.9%, 2019년도(소비세인상의 영향 제거)는 0.9%로 5월 시점과 거의 변함이 없음

- 에너지가격과 임금상승에 의한 가격전가에 의해 플러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, 가격전가의 움직임은 소극적이고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2%의 물가상승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

## 2. 경제정책

### □ 2019년도 경제산업정책의 중점

- 일본은 글로벌한 정치·경제의 상황변화, 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에 직면, 저출산·고령화와 인생 100년 시대의 도래 등도 맞물려 종래의 경제사회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음
-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고 일본 전체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데이터를 핵으로 한 오픈이노베이션, ②새로운 룰 베이스의 통상전략, ③지역중소기업 등의 활성화를 3개 테마로 하여 산업·통상·지역정책을 일체적으로 추진

#### 1) 제1 테마 : 데이터를 핵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에 의한 Society5.0 실현

- Connected Industries 추진과 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 구축

##### (1) 개별 전략에 있어서 이노베이션 추진

- Connected Industries 추진
- 캣쉬리스(무현금)추진에 의한 소비데이터 활용
- 비행자동차의 실현 등을 위한 고도의 제조기술·데이터 활용

##### (2)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산업기반 강화

- J-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시스템 강화
- AI실장/연구개발/인재육성·활용
- 오픈이노베이션형 비즈니스에 관한 룰 정비
- 플랫폼형 비즈니스에 관한 룰 정비
- 관민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

- 산업통상지역정책의 일체적 추진

#### 2) 제2 테마 : 새로운 룰 베이스의 통상전략

- 시장왜곡적 조치,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항(미구일 3국 장관회의, WTO등 활용)
-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다각적인 통상관계 구축

### 3) 제 3테마 : 지역·중소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 구축

- 지역의 수익력 강화·인바운드확대
- 중소기업 등의 생산성 향상·노동방식 개혁
- 중소기업 등의 전문가 확보
-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

### 4) 제 4테마 :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한 환경과 성장의 호순환

- 수소사회 실현
- 에너지 전환·탈탄소화이노베이션·투자 촉진
- 국제연휴

### 5) 제 5테마 : 성장과 분배를 포괄한 새로운 경제사회시스템

- 산업인재육성·활용(EDTech, 리커런트)
- 사회보장을 지탱하는 민간 비즈니스

## □ 일본 자동차의 신시대 전략

- 경제산업성이 전기자동차(EV)와 하이브리드차(HV), 수소 등을 사용하는 연료전지차(FCV)등 차세대자동차의 보급에 주력하고 있음
  - 2050년까지 세계에서 판매하는 일본의 승용차를 전부 전동화하는 목표를 공표 촉진지 기술 개발 등에서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고 있음
- 7월 24일 개최된 자동차신시대전략회의에서는 축전지 기술 등 기업의 벽을 넘는 협력을 추진
  - 동 회의에서는 경제산업성과 전문가, 기업관계자들이 3개월에 걸쳐 논의한 중간보고회에서 자동차산업이 계속 세계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장기 전략을 확인

- 지구온난화대책의 국제적인 틀인 파리협정을 달성하기 위해, 승용차 대당 온난화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90% 삭감하는 목표를 설정
  - 이를 위해 축전지와 고성능반도체 등의 기술개발을 협조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기업의 벽을 뛰어넘는 협력을 추진키로 함
  - 2018년 중으로 로드맵을 책정할 방침임. 축전지의 원재료인 희소금속 코발트 조달에서도 기업간 제휴를 추진키로 함
- 그러나 기업측의 사정은 복잡함
  - 예를 들면 도요타 자동차는 프리우스를 비롯하여 HV에 주력. MIRAI 등 FCV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음
  - 한편, 닛산자동차는 리프를 필두로 EV로의 전환을 추진중임
  - 엔진개발에 중점투자해왔던 마쓰다는 전동화 추진에서 전략의 재검토를 서두르고 있음
- 차세대 자동차 보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축전기 개발에서도 라이벌기업에게 기술을 공개하는데 저항하는 기업들이 많음
  - 대형 자동차업체의 간부로부터는 「일본의 자동차산업을 위해 협조한다고 하는 총론은 찬성이나, 각론에 들어가면 어렵다」는 지적임
  - 경제산업성은 회의에서는 반대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, 어느 업체 사장은 「왜 경제산업성이 개입하는가, 업계단체인 일본자동차공업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」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함
- 국가가 유망한 분야를 선정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실현
  -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산업성의 전신이 통상산업성의 관료가 업계를 주도하여 성공했다고 하는 발상이 지금도 경제산업성 내에서는 뿌리깊게 남아 있음
- 1976년 설립한 고대규모집적회로(LSI)기술연구조합에서는 통산성과 후지쓰, 히타치 제작소, NEC 등이 협조하여 차세대집적회로를 개발. 일본의 반도체업계가 세계 정상으로 도약했음

- 그러나 근년에는 여의치 않고 있음
  - 경제산업성이 후지쓰와 NEC 등을 끌어안고 국산검색엔진개발을 목표로 한 「정보 대향해프로젝트」는 총액 150억엔을 투입했으나, 실용화를 사실상 단념함
  - 또 국가의 숙원사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개발을 지원한 국산여객기 「MRJ」는 상용화를 연기하고 있음
- 산업계로부터는 관청이 차세대 성장산업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
  - 한편, 「국가로부터 요청이 오면 거절할 수 없다든가, 실패하더라도 국가가 구제해주겠지」하는 안이한 구조가 형성되기 쉬운 것도 사실이라는 지적임
- 과거 산업정책을 주도한 전 경제산업성 간부는 「국가가 계획을 입안하고, 이에 기업으로 하여금 따르게 하는 발상은 시대착오다. 업계를 지도, 감독하는 경제산업성의 제조산업국은 더 이상 해체해도 좋다」고 함
- 경제산업성, 산업계에서 동상이몽의 차세대자동차의 보급구상이 목표를 향하여 순항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할 수 없음

## □ 일중 경제협력 심화

- 일본 고노타로(河野太郎) 외상과 중국 왕이(王毅)외상이 8월 2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가짐
  - 일중 양국의 민간레벨에서의 경제협력을 심화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으며 일중 기업이 제 3국의 인프라 개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까운 시일 내에 발족시킬 방침을 확인함
  -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을 위한 조정도 추진, 경제협력을 전면에 내세우고 관계개선을 도모함
- ASEAN관련 외상회의에서 고노 외상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올리고 정상간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
- 왕이 외상도 일본측은 대중관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많은 구상을 제안해왔는데, 중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함

- 중일 간 경제협력의 핵심은 제 3국에서 민간협력임.
  - 중국의 광역경제권구상인 「일대일로」에 관련된 인프라투자 안전에,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를 상정하고 있음
  - 일본정부의 설명에 의하면, 양국 외상은 관민협력의체를 적절한 시기에 발족, 과정을 단축시킬 방침을 확인함
- 회담에서는 중국측이 특히 인공지능(AI)와 전자결제 등 디지털분야에서의 일본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계속할 방침도 공유함
- 시진핑 지도부는 대미관계의 긴장으로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
  - 왕이 외상은 회담에서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, 고노 외상은 자유무역체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동조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문제에서는 못을 박음
- 양국은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정상의 상호방문을 추진할 방침임
  - 일본 측은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3선이 이루어지면, 10월 중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
  - 2019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일할 계획을 추진, 외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음
- 안전보장 면에서는 과제를 남겼으며 중국이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남지나해 문제에서는 왕의 외상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에 협력을 구했으나 일본은 현재 상태에 우려를 표명함
  - 동지나해에 대해서도 고노외상이 중국의 자원개발이나 센카쿠제도 문제를 거론, 중일의 안정적인 발전을 꾀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해양안전보장분야의 구체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지적
  - 이에 왕이 외상은 입장 차이를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중국의 입장을 강조함
- 일본 측은 2008년에 합의한 동지나해 가스전의 공동개발에서 전진을 모색 중
  - 중국 측은 해양권익에서는 양보하지 않고 미일안보협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음
  -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이나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불신도 뿌리 깊어 관계개선은 아직 불안정한 편임

### 3. 기업전략

#### □ 소프트뱅크, 독자적인 데이터경제권 구축에 주력


- 소프트뱅크 그룹이 데이터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기 시작함
  -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설계자회사인 영국 ARM이 빅데이터 관리업체인 미국 트레저데이터를 약 6억 달러에 매수하여, 커넥티드카용 신형 반도체 설계제안 등에 활용하는 외에 라이드 세어나 통신 등 그룹이 가진 데이터자산을 융합시켜 신사업 개척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임
- 이는 데이터경제권 구축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 IT업체들을 추격하기 위해서인데, 8월 중순경 발표하는 트레저데이터는 인공지능 개발업체인 프리퍼드네트웍스의 모체 기업에 있던 기술자들이 발족시킬 예정임
  - 동 업체는 2011년 미국 실리콘벨리에 설립,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쉽도록 하고 통합하거나 가공하는 기술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고객은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300개사 이상으로 확대
- ARM은 트레저데이터를 인수함으로써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용 반도체 설계에 탄력을 붙일 목적임
  - 대표적인 사례가 통신기능을 가진 커넥티드자동차임
  - 커넥티드자동차가 보급되면 각 차량의 주행데이터나 교통망 전체의 혼잡상황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게 됨
  - 그러나 교통체증 완화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시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함
- 트레저데이터 기술을 사용하면 다양한 형식의 빅데이터를 모으기가 쉬워지고, 설계에서 데이터의 교환을 전제로 한 신형 반도체를 자동차업체에 제안하기가 쉬워짐
  - 자동운전 등에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 처리기술과 조합하여 경합과의 차별화에도 활용케 함
- 나아가 소프트뱅크 그룹 전체로서도 데이터 활용의 폭이 넓어짐
  - 데이터와 AI가 융합되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음



- 소프트뱅크 그룹은 이제까지 라이드셰어 업체인 미국 우버테크놀로지와 중국 디디추싱(滴滴出行), 지도를 공유하는 미국 맵박스, 식사택배업체인 미국 도어닷슈 등에 출자
  - 사람과 사물의 이동·수송데이터를 확보해왔으나 이것들을 조합하여 사업개척에 활용하는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
- 이에 ARM의 반도체는 제조업으로부터 소매, 서비스업에 까지 폭넓은 정보단말기에 사용되고 있음
  - 고객기업으로부터 사람과 사물의 흐름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택배용 자동 운전차의 개발이나 사람의 이동·분포에 맞추어 가두의 전자광고로 적절한 선전을 하는 새로운 서비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
- 이러한 데이터 연휴는 GAFA(구글, 애플, 페이스북, 아마존닷컴)으로 불리는 미국 IT업체들이 앞서왔음. 소프트뱅크그룹이 독자적인 데이터경제권 구축을 서두르는 것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임
- GAFA의 공세에 소프트뱅크도 대항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과제가 적지않음
  - GAFA에도 필적하는 데이터자산을 축적해왔던 소프트뱅크이나 그 대부분은 운용액 10조 엔 규모의 소프트뱅크·비전·펀드를 통하여 확보한 출자선임
  - 사업의 독자적인 개발이나 자기자금에 의한 기업매수로 데이터를 몽아왔던 GAFA에 비하여 데이터의 활용이나 연휴면에서는 이용자나 고객기업의 이해를 보다 신중이 구해 나갈 필요가 있음
  - 또 재무 면에서도 잇단 대형매수로 연결베이스 부채 잔고는 16조 엔을 상회하고 있음
- 한편 GAFA는 애플이 30조 엔에 가까운 유동성자금을 가지는 등 압도적인 자금력이 강점임
  - 나아가 GAFA는 사내에 많은 데이터전문가들을 가지고 세계 유수의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
  - 최근에는 클라우드 사업 등에도 영역을 넓혀, 데이터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
- 소프트뱅크가 GAFA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음

## □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일기업간 경쟁 격화

-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서 한일간 브랜드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음
  - 일본의 코세와 시세이도 등 일본기업은 방일객의 구입을 통하여 인지도나 평가를 높이는 반면, 한국의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젊은 층 사이에서 지지를 넓히고 있음
- 중국은 프랑스 로레알이 아성으로 해오고 있는데, 2018년 수입액은 한국과 일본이 1, 2위를 점할 공산이 큼
  -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어 구미 브랜드를 사용하는 만족보다도 소비자들의 피부에 적합한지를 중시하게 된 영향이 큼
- 상해의 변화가 백화점내에 있는, 코세의 브랜드 코스메테코르테의 매장은 개당 1만 엔을 상회하는 스킨케어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
  - 중국에서는 방일객이 대량구매해왔던 수천엔대의 세키키세(雪肌精)에 더하여 최고급 데코르테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
  - 중국법인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보습 등의 효과가 큰 일본제품의 고품질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함
  - 중국에서 현재 13개의 데코르테 점포를 2020년에는 30개로 늘릴 방침임
- 2017년은 중국으로부터 약 735만 명이 일본을 방문, 그 중 80%가 화장품을 구입했으며 현재는 대중국 수출이 일본 각사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음
  - 중국 세관에 의하면 일본제 화장품 수입은 약 12억 달러로 2015년 대비 2.5배나 증가, 방일객의 구입으로 품질에 익숙해져 자국에서도 구입하게 된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음
- 코세 이외의 기업도 약진하고 있음
  - 시세이도의 중국 사업은 중일 간 대립, 중저가의 현지생산브랜드의 부진으로 일시 정체를 보였으나, 현재는 최상에 오름
  - 일본제의 수요증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에서의 생산을 확대, 2017년 이후는 일본제로 대체한 스킨케어 「에릭실」의 직영점도 전개하기 시작함

- 2020년까지 주력 브랜드인 「SHISEIDO」의 약 270개점에 상용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임
- 포라도 2020년까지 판매점을 현재의 3배인 34개로 늘릴 계획임
- 중국에서 일본제와 경쟁하는 것이 한국 브랜드임
  - 상해 시내에서 2018년 6월에 리뉴얼한 「에튜드하우스」 점포는 10-20대의 여성들로 북적이고 있음
  - 개당 60위안정도에서 리프나 아이세도 등 약 1천점이 진열해있는 점내는 화장품을 부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장치, 상품에 이름을 넣은 코너를 설치하고 있음
- 동 브랜드를 전개하는 아모레퍼시픽은 한류 드라마의 인기를 내세워 중국에서 메이컵의 점유율을 2017년에 6%로 2014년의 1.5배 이상으로 늘림
  - THAAD 배치의 영향으로 일시 실적이 악화되었으나, 최근 한중관계는 개선이 실마리가 보여지고 있음
- 한국으로부터 「3CE」 「메디힐」이라는 신형 브랜드도 계속 진출하고 있음
  - 중국의 화장품수입액에서는 2017년에 한국제가 프랑스제를 상회하여 처음으로 수위를 점함
  - 일본제도 2018년 1-6월에 전년동기비 2배의 증가율을 보여, 수위의 자리를 넘보고 있음. 

### III. KJCF & KJE News

#### □ 한일재단 & 한일경제협회 사업 및 행사 개최 결과

##### 제19회 한일(호쿠리쿠) 경제교류회의

일시 : 2018년 8월 26~29일

장소 : 일본 후쿠이현

규모 : 한일 약 150명

주제 : 한일 새로운 스테이지에서의 지역 간 연계

1) 행복도 순위가 의미하는 것

2) 한일 신스테이지에서의 지역간 연계

주최·주관 : 산업통상자원부, 일본 경제산업성  
중부경제산업국, (사)한일경제협회,  
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, 일본  
호쿠리쿠경제연합회, 호쿠리쿠AJEC



#### □ 한일재단 & 한일경제협회 모집 안내

##### 1) 한일산업기술페어2018 참가자 모집

○ 목적 : 한일 양국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「한일협력사업」의 통합 개최로 규모 있는 행사의 개최를 통해 양국기업의 참여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비즈니스 교류와 양국 간 산업협력 촉진에 기여

○ 일시 및 장소 : 2018년 9월 19일(수) 09:00~18:00 KINTEX(고양시) 제2전시장 6홀

##### ○ 주요 행사

- 한일산업기술페어2018 개최식 및 한일산업협력상 시상식
- 한일부품소재상담회
- 한일 자동차부품 상담회·구매전략세미나
- 한일베어링 바이어초청상담회
- 일본우수퇴직기술자 기술지도매칭상담회
- 일본취업환경설명회
- 일본기업취업상담회

☞ 자세한 내용 및 각 행사 모집 내용 등은 <https://www.kjcf-fair.kr/>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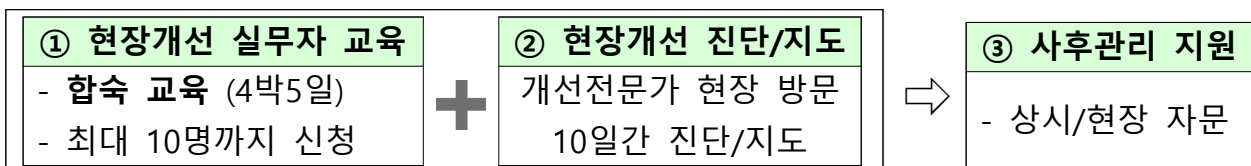
## 2) 2018 일본 모노즈쿠리 IoT 연수(제2차) 참가자 모집

- 일본 제조업의 원동력인 모노즈쿠리에 IoT를 활용한 일본의 “모노즈쿠리 IoT” 활용현황 파악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더스트리 4.0 제조혁신 방향성을 제시하여 제조현장의 스마트화의 필요성 및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연수
- 대상 : 중소·중견기업 공장개선/품질개선/생산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·팀장급 이상인 자
- 일시 : 국내 과정 2018년 10월 15~16일 / 1박 2일  
일본 과정 2018년 10월 16~19일 / 3박 4일
- 장소 : (국내 과정) 경기도 시흥시, (일본 과정) 나고야시 등

☞ 자세한 내용은 [http://kjc.or.kr/news/recruit\\_view.jsp?recr\\_idx=4527](http://kjc.or.kr/news/recruit_view.jsp?recr_idx=4527) 참조

## 3) 2018 뿌리기업 강한현장 육성사업 참가기업 추가 모집

- 목적 : 생산공정관리기법을 적용한 뿌리기업의 경쟁력 강화
- 내용 : 뿌리기업의 생산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『① 현장개선 실무자 교육』 과 뿌리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『② 현장개선 진단·지도』 『③ 사후관리 지원』 으로 구성



- 사업 특징 :
  - 현장작업자 교육 후 향후 자주적이고 효율적인 개선활동 가능  
※코스트 다운, 품질개선, 불량률 감소, 공정흐름개선, 물류개선 효과
  - 모노즈쿠리(통합적 관리)시스템 및 스마트 공장 구축 기반조성
- 신청기간 : 2018.9.14.(금) 18:00까지 이메일 도착분

☞ 자세한 내용은 [http://kjc.or.kr/news/recruit\\_view.jsp?recr\\_idx=4489](http://kjc.or.kr/news/recruit_view.jsp?recr_idx=4489) 참조

## IV. 이달의 추천자료

### 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(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port.jsp>)

- 『생존을 위한 지속적 변화, 오릭스』 2018-08-21
- 『공장자동화의 조력자, 오므론』 2018-08-16
- 『나고야 지역, 아시아 수출액 과거 최고』 2018-08-14
- 『한·일 지역간 협력에 관한 연구』 2018-08-02
- 『지역미래견인기업 사례(6) 동명공업』 2018-07-31
- 『지역미래견인기업 사례(5) 이부키』 2018-07-26

### □ 일본기관 연구보고서

- 『2019년도 경제산업정책의 중점』 경제산업성, 2018년 8월 22일  
<http://www.meti.go.jp/shingikai/sankoshin/sokai/023.html>
- 『일본의 실질수출의 중요성』 닛코어세트메니지먼트, 2018년 8월 17일  
<http://www.nikkoam.com/files/products/column/pdf/kamiyama-reports/2018/kamiyama0816.pdf>
- 『ICT에 의한 이노베이션과 새로운 이코노미 형성에 관한 조사연구』 총무성, 2018년 8월 9일  
[http://www.soumu.go.jp/johotsusintokei/linkdata/h30\\_02\\_houkoku.pdf](http://www.soumu.go.jp/johotsusintokei/linkdata/h30_02_houkoku.pdf)
- 『변용하는 소비구조』 닛세이기초연구소, 2018년 8월 8일  
[http://www.nli-research.co.jp/files/topics/59284\\_ext\\_18\\_0.pdf?site=nli](http://www.nli-research.co.jp/files/topics/59284_ext_18_0.pdf?site=nli)
- 『2018년도 경제재정백서』 일본 내각부, 2018년 8월 4일  
[http://www5.cao.go.jp/j-j/wp/wp-je18/index\\_pdf.html](http://www5.cao.go.jp/j-j/wp/wp-je18/index_pdf.html)
- 『IMD 세계경쟁력연감으로부터 본 일본의 경쟁력(제1회)』 미쓰비시종합연구소, 2018년 8월 3일  
[https://www.mri.co.jp/opinion/column/trend/trend\\_20180802.html](https://www.mri.co.jp/opinion/column/trend/trend_20180802.html)
- 『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사』 경제산업성, 2018년 7월 28일  
[http://www.meti.go.jp/meti\\_lib/report/H29FY/000353.pdf](http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29FY/000353.pdf)
- 『소비세율 인상의 영향과 대책』 후코쿠생명, 2018년 7월 26일  
[https://www.fukoku-life.co.jp/economy/pdf/report\\_VOL301.pdf](https://www.fukoku-life.co.jp/economy/pdf/report_VOL301.pdf)

## V. 한일경제지표

### 1) 2018년 7월 對日수출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목명	2018.6월			2018.7월			2018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	총계	2,602	10.7	2.9	2,541	17.5	-2.3	17,768	15.6
1	철강제품	325	-5.9	-12.2	357	9.4	9.8	2,421	6.5
2	광물성연료	415	95.2	46.1	342	68.9	-17.6	2,690	64.6
3	석유화학제품	207	53.3	1.5	203	66.9	-1.9	1,315	37.8
4	정밀화학제품	173	4.9	-3.4	184	35.8	6.4	1,176	33.3
5	전자부품	169	8.6	3.0	158	28.9	-6.5	1,092	11.2
6	산업용전자제품	132	-8.0	12.8	142	30.7	7.6	902	6.6
7	수송기계	120	-13.2	0.0	119	2.3	-0.8	837	-10.0
8	농산물	96	0.4	-3.0	91	4.0	-5.2	651	8.2
9	기계요소공구· 금형	86	-13.7	-6.5	90	-3.6	4.7	614	-4.5
10	산업기계	76	-1.5	0.5	81	-8.9	6.6	526	13.9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# 2) 2018년 7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목명	2018.6월			2018.7월			2018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기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	총 계	4,443	-6.9	0.8	4,579	2.7	3.1	32,592	3.3
1	전자부품	533	-1.3	18.4	528	-1.3	-0.9	3,702	1.3
2	철강제품	609	14.8	8.4	521	16.2	-14.4	4,028	15.6
3	정밀기계	506	-38.6	-21.4	476	-33.1	-5.9	4,637	-4.5
4	정밀화학제품	379	18.3	-0.3	418	28.8	10.3	2,778	20.0
5	석유화학제품	250	-23.9	-19.4	317	0.8	26.8	2,291	-13.5
6	산업용전자제품	292	1.8	9.4	301	24.7	3.1	1,949	13.9
7	수송기계	200	-22.4	-2.9	273	6.4	36.5	1,612	5.5
8	기초산업기계	248	-14.3	17.0	259	1.4	4.4	1,704	-9.5
9	산업기계	201	3.6	19.6	208	2.0	3.5	1,285	-1.0
9	플라스틱제품	181	-7.8	-1.1	186	-7.0	2.8	1,294	-3.0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 3) 일본 주요경제지표

구 분		2017	2018					
			1/4	2/4	4월	5월	6월	7월
GDP증가율(실질,연율,%)		1.7	-0.6	1.9p)	-	-	-	-
경기동향지수(2010년100)		-	-	-	117.5	115.8	116.3	-
광공업생산증가율(전기비,%)		4.5	-	-	0.5	-0.2	-1.8	-
실질소비증가율(전년비,%)		-0.3	-	-	-1.3	-3.9	-1.2	-
기계수주액증가율(전기비,%)		-1.1	-	-	10.1	-3.7	-8.8	-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전기비	0.5	-	-	0.2	0.2	0.0	-
	전년비	0.5	-	-	0.7	0.7	0.8	-
실업률(%)		2.8	-	-	2.5	2.2	2.4	-
수출액(조엔)		78.3	6.7	20.2	6.8	6.3	7.1	6.7
수입액(조엔)		75.4	6.7	19.4	6.2	6.9	6.3	7.0
무역수지(조엔)		2.9	-0.02	0.8	0.6	-0.6	0.7	-0.2
경상수지(조엔)		22.0	5.8	4.9	1.8	1.9	1.2	-
해외직접투자(조엔)*		55.3	20.3	14.6	5.6	3.4	5.6	-
환율	달러	112.1	108.1	109.1	107.4	109.7	110.3	111.4
	원화(100엔)	1,009	990	989	993	981	993	1,008
금리(10년물,%)		0.052	0.059	0.04	0.050	0.030	0.030	0.060
주가(닛케이,엔)		20,209	22,367	22,341	21,869	22,590	22,563	22,309

주: p)는 개정치 \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## 4) 2018년 7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(억엔,%)

순위	품목	2018.6월			2018.7월			2018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자동차	10,344	-1.0	19.9	9,936	-2.8	-3.9	70,159	6.3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588	9.0	11.6	3,664	8.0	2.1	23,431	5.1
3	자동차부품	3,512	8.4	13.8	3,360	0.8	-4.3	22,953	3.4
4	철강	2,962	7.2	-0.3	2,854	11.2	-3.6	19,896	5.2
5	원동기	2,568	15.4	21.1	2,405	2.0	-6.3	16,792	6.9

자료 : 일본 재무성



## 5) 2018년 7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8.6월			2018.7월			2018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중국	13,859	-0.6	8.9	13,553	11.9	-3.7	90,106	10.6
2	미국	12,920	-0.9	12.7	12,506	-5.2	-3.2	86,736	1.2
3	ASEAN	10,847	13.4	9.1	10,796	7.9	-0.5	72,312	8.8
4	EU	7,937	9.3	13.8	7,668	6.4	-3.4	53,786	8.5
5	한국	4,845	-4.1	4.6	4,686	-1.9	-3.3	34,011	-1.0
6	대만	3,964	5.9	5.7	3,954	4.4	-0.3	26,816	3.6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 6) 2018년 7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품목	2018.6월			2018.7월			2018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원유	5,736	20.2	-15.6	7,635	40.3	33.1	47,760	16.9
2	액화천연가스	3,097	4.6	-11.6	3,854	16.7	24.4	25,985	10.7
3	의약품	2,133	-11.2	-20.9	2,953	46.8	38.4	17,382	13.1
4	의류·동부속품	2,171	9.1	-6.8	2,707	13.1	24.7	17,437	4.8
5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266	-4.6	-2.7	2,523	4.0	11.3	15,935	1.7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 7) 2018년 7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8.6월			2018.7월			2018.1-7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중국	14,536	-0.6	-6.4	15,672	6.7	7.8	106,325	3.3
2	ASEAN	9,834	2.5	-3.8	10,306	6.3	4.8	70,766	7.2
3	EU	7,646	5.2	-6.9	8,896	29.1	16.3	55,638	13.8
4	미국	7,017	-2.1	-12.9	7,479	11.0	6.6	50,225	6.6
5	호주	3,676	-9.1	-11.9	4,316	22.2	17.4	27,953	10.9
7	한국	2,906	14.8	-0.2	3,016	12.5	3.8	20,525	14.2

자료 : 일본 재무성